

책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자유

자신과 세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책읽기의 의미

나희덕

시인

“책이 좋은 것은 언제든지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그가 읽은 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책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이점이다.”

김현은 그의 《예술기행》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면서도 나의, 또는 우리의 책읽기가 실제로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반문해보면 그 대답은 사뭇 부정적이다.

시간을 쪼개서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 쌓여가는 책들, 그것은 읽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짐스럽게 한다. 또 막상 책을 열고 읽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책보다 혼돈과 환멸로 이끄는 책이 늘어나는 현상은 정신적 공해에 다름 아니다. 물론 아니다 싶은 그 책을 당장이라도 내 뺄까칠 자유가 내게는 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일말의 기대와 오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 억압을 참고 견디며 읽어간다. 헛된 지식욕의 결과는 참담하다. 그 책에 대한 실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 역시 이렇게 지쳐 있고 닳아 있고 알팍한 모습으로 읽혀질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까지 들어서 쓸쓸해지기 십상이다.

책과 글에 대하여 마냥 애뜻하고 설레던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용돈으로 한권 한권 책을 사모던 대학시절, 책장에 늘어나는 책과 거기 그어진 붉은 밑줄과 비례하여 내 정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기도 했었다. 더욱이 그 당시 판금된 작가들의 책—김지하, 신동엽, 정지용, 백석 등—을 구해 몰래 복사본을 만들어서 나누어갔던 기억은 일종의 은밀함까지 더해져 그 책들의 무게를 더해주었다.

불심건문을 받을 때마다 신문에 써인 그 책들 때문에 느껴지던 가방의 무게는 지적 모험에 대한 대가였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때보다 여러모로 풍족해지고 자유로워졌는데, 그럴수록 책에 대한 행복감과 경외심은 희박해져간다. 읽고 싶다는 간절함보다는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책을 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부쳐오는 책들도 읽기 바쁘다. 쏟아져나오는 책들의 홍수, 그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묻곤 한다. 자유로운 책읽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책읽기란 이제 불가능해진 것인가.

이러한 나를 치유해주는 책이 있다. 글을

읽고 또는 쓰면서 입은 언어의 때와 마음의 소란함을 가라앉혀주는 책. 언어로 되어 있지만, 읽어나갈수록 내 속의 술렁거리는 언어를 행간으로 바꾸어놓는 책.

그 책은 쏟아져나온 것이 아니라 저 깊은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나는 그를 발견했다. 남영동 헌책방 골목에서 먼지에 덮인 채 나를 끌어당긴 아주 작고 얇은 책. 언제 절판이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책의 제목은 《침묵의 세계》였다. 막스 뼈까르라는 지은이의 이름도 박갑성이라는 옮긴이의 이름도 내게는 생소했지만, 제목 그대로 나는 그들에 의해 어떤 침묵의 세계로 은밀히 인도된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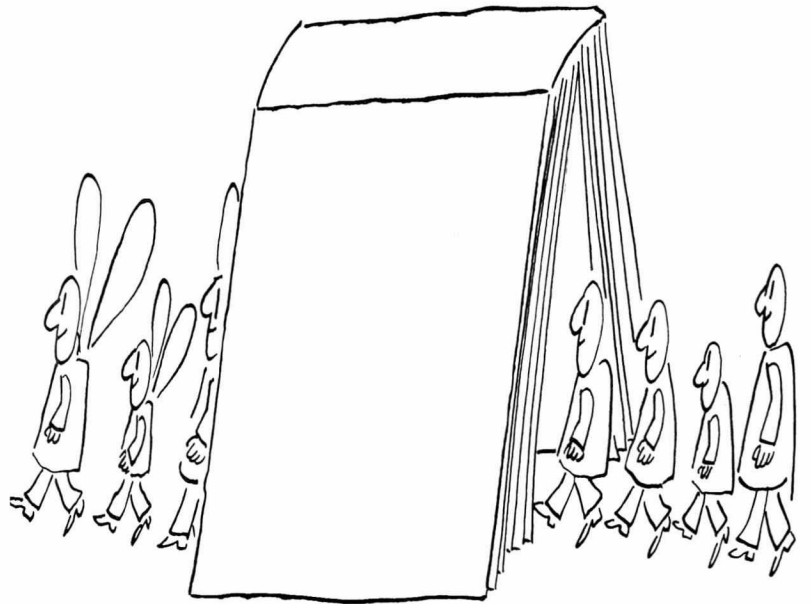
집에 돌아와 먼지를 닦아내고 그 세계로 들어간 나는 불과 몇 장을 읽고 책장을 덮었다. 그것은 달콤한 음료수처럼 단숨에 마셔버릴 성질의 책이 아니었다.

나는 써지 않은 빵이라도 되듯이 그 책을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곤 했다. 그 책을 과식하는 것조차 내게는 탐욕처럼 여겨졌다. 이상하게도 몇 장을 읽고도 그 책을 다

집에 돌아와 먼지를 닦아내고
그 세계로 들어간 나는 불과
몇장을 읽고 책장을 덮었다.
그것은 달콤한 음료수처럼
단숨에 마셔버릴 성질의 책이
아니었다. 그 책을 과식하는
것조차 내게는 탐욕처럼
여겨졌다.

보아버린 듯했고, 한번을 통독한 후에도 다시 펼쳐들 때마다 전혀 다른 책을 접하는 느낌이 들었다. 실로 오래 맛보지 못했던 충일감 같은 게 내 마음에 흘러들었다.

릴케가 뼈까르를 가리켜 “그는 이른바 문필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며 아마 저술가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특징은 그것이 무섭게 엄밀하다는 점입니다”



라고 평했던 것처럼, 이 책은 철학서도 신학서도 아니며 문학적 에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침묵에 대한 해설서는 더욱 아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침묵의 눈과 가슴을 상실해버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상을 보여주고, 듣지 못했던 소리를 조용히 들려줄 뿐이다. 그리고 그의 집중적인 사색이 힘입어 조금씩 존재의 제자리로 되돌려지는 느낌이었다.

그의 사색은 공허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다. 많은 소제목들—침묵과 말 사이의 인간, 역사와 침묵, 사랑과 침묵, 사물과 침묵, 동물과 침묵, 시간과 침묵, 아기, 노인 그리고 침묵, 시와 침묵, 조형예술과 침묵, 침묵의 잔재, 침묵과 신앙, 질병, 죽음 그리고 침묵 등—은 침묵이라는 땅을 통해 그가 견져올린 생생한 삶의 향목들이다. 그것은 시적인 언어와 빛나는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가 말하는 침묵이란 언어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가 참다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연결고리이며, 언어의 가장 적극적인 배후로서의 침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의 가능성과 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다른 모든 책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책이 주는 울림은 언어 그 이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책은 언어로 되어 있으면서 언어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한다. 언어 그 너머의 것, 그러나 세상의 많은

책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패배자의 발음으로 가득차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언어라는 노를 저어 진리의 격랑 속을 헤쳐나가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참다운 언어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들끓고 있지만, 언어와의 그 지루한 싸움에서 잠시라도 놓여나기를 또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나무그늘과도 같다. 설세없이 무언가를 읽어내고 써대는 것도 일종의 욕망이 아닌지, 그 욕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지치고 상처입은 것인지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읽는 일 못지 않게 읽는 것을 멈추는 일의 중요성을, 언제나라도 읽던 책을 덮어버리고 그 책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자유를 환기 시켜주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독경하지 않음은 경전의 때요 수리하지 않음은 집의 때라 하여 공부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모든 가르침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것이라 하여 그것을 버리라고도 말한다. 책읽기의 의미는 감정의 대리만족이나 지식의 정복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과 세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데 있을 것이다. 결국 채움과 버림의 긴장관계 속에서 책은 비로소 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게 아닐까.